

충남연구원, 2025 비전 선포 등 개원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이 개원20주년을 맞아 2025 비전을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6월 12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개원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선포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지역을 위해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연구자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네트워크 조직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도민이 신뢰하는 최고 정책 연구기관 등을 설정했다.

강현수 원장은 기념사에서 “충남연구원은 도민 체감형 연구 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지식 정보의 생산과 교류, 확산과 저장의 플랫폼 역할을 선도하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구원이 좋은 연구성과도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역량 강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





를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충남의 현재를 짚어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이었다.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외 경쟁력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초국경 협력의 주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융복합화·체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용웅 전충남연구원장의 좌장으로 강봉룡 목포대 교수, 강희정 한밭대 교수, 백낙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백낙구 행자위원장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충남에도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하기 보다는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재 연구위원 역시 “환황해권의 정의를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원행사는 최근 번지고 있는 ‘메르스’ 예방 차원으로 예정되었던 외부인사 초청을 자제하고 연구원 내부행사로 대폭 축소·개최되었다.

충남연구원,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발간

— 두 번째 현장총서 시리즈로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가 번역작업

충남연구원은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험적 요인들을 담아낸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저자 ‘폴 매티시’, 역자 ‘장수찬’)”를 발간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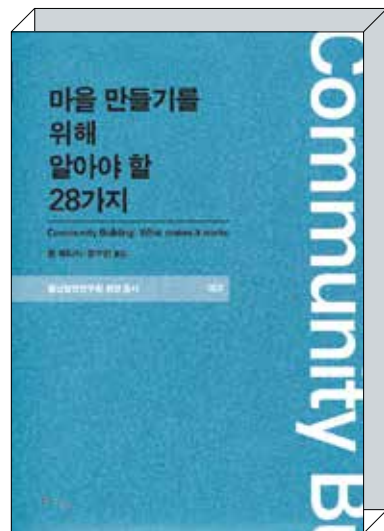
이 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보는 관점을 요구하며, 마을의 사회적 역량이 무엇인지 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려 준다.

미국 와일드연구소장으로 활동중인 ‘폴 매티시’ 등 연구자들은 525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1차로 48개 사례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28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낸 것이다. 즉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원칙을 제시하는 책은 많았지만, 이처럼 수많은 경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은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28가지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각 요소마다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질문을 담아 실제 활동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 준다. 또한 28가지 요소와 질문들을 한 눈에 보면서 메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실었다.

번역을 맡은 목원대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는 “이 책은 마을 리더나 활동가들에게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익히고 학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인권 도시 만들기”로 시작된 현장총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남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다.〈발간 : 도서출판 그물코, 160쪽, 12000원〉



백석올미마을 농촌활동 및 백석올미영농조합 업무협약식

충남연구원은 5월 8일 당진시 순성면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연구원 임직원 80여명은 매실농장 견학은 물론 각 조별로 발매기, 사과 적과, 깨 심기 등을 실시하며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다.

특히 이 마을의 백석올미영농조합은 지난해 전국 농업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곳으로 평균연령 75세인 마을할머니들이 모여 매실한과와 매실엑기스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현장 리더 교육, 정책 지원 연구 등 6차산업화 육성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현장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농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한대학교, 충남 환황해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및 워크숍

충남연구원은 당진시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와 함께 충남의 환황해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식과 워크숍을 동시에 개최했다.

세한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 기관장은 물론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세한대 해양레저학과 학생 등 약120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현수 원장과 이승훈 총장은 워크숍에 앞서 가진 협약식에서 환황해권 발전을 중심으로 한 도내 현안사업 정책 연구 및 정보 공유 등 4개 분야의 협약안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워크숍에서는 충남연구원 김정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의 ‘충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거점 조성방안’, 해양수산부장정구 해양레저과장의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세한대학교 최미순 산학협력단장의 ‘다도해권 해양 레저관광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례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해수부 장정구 과장은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며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창조경제의 보고인 ‘바다’의

가치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면서 “해양레저산업의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마리나 산업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올해 187억 원을 비롯해 2019년까지 매년 17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만큼, 충남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세한대 김형호 기획처장의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 당진시 신현배 항만물류과장, 세한대 해양레저학과 이영오 교수 등이 참석해 당진시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연구원, “충청중국포럼 닷 올렸다”

— 대(對)중국 교류와 대응전략을 주도할 플랫폼 역할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1일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대(對)중국 교류와 대응전략을 주도할 ‘충청중국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충청중국포럼’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이 사무국을 맡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對)중국 교류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차원의 대응전략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박인성 중국연구팀장은 “앞으로 ‘충청중국포럼’은 도와 각 시·군이 교류할 중국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자문 등을 수행함은 물론, 주목해야 할 중국의 주요 이슈와 동향정보를 정리·해설한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동통신’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매월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열린 출범기념 세미나에는 충남연구



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의 좌장으로 한발대 강희정 국제교류원장,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아이홍거(艾宏歌) 주한 중국대사관 교

육참사, 구자익 한국교육교류협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수중 공주대 교수,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 김덕주 당진시 안전자치국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산동성 룡청(榮成)시와 웨이팡(濰坊)시, 광둥성 동관(東莞)시와의 교류현황 및 보령시-상하이시 청푸(靑浦)구와 텐진시 빈하이(濱海)신구와의 교류현황 등 대(對)중국 교류 사업추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 출범식에는 김동완 국회의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학계,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